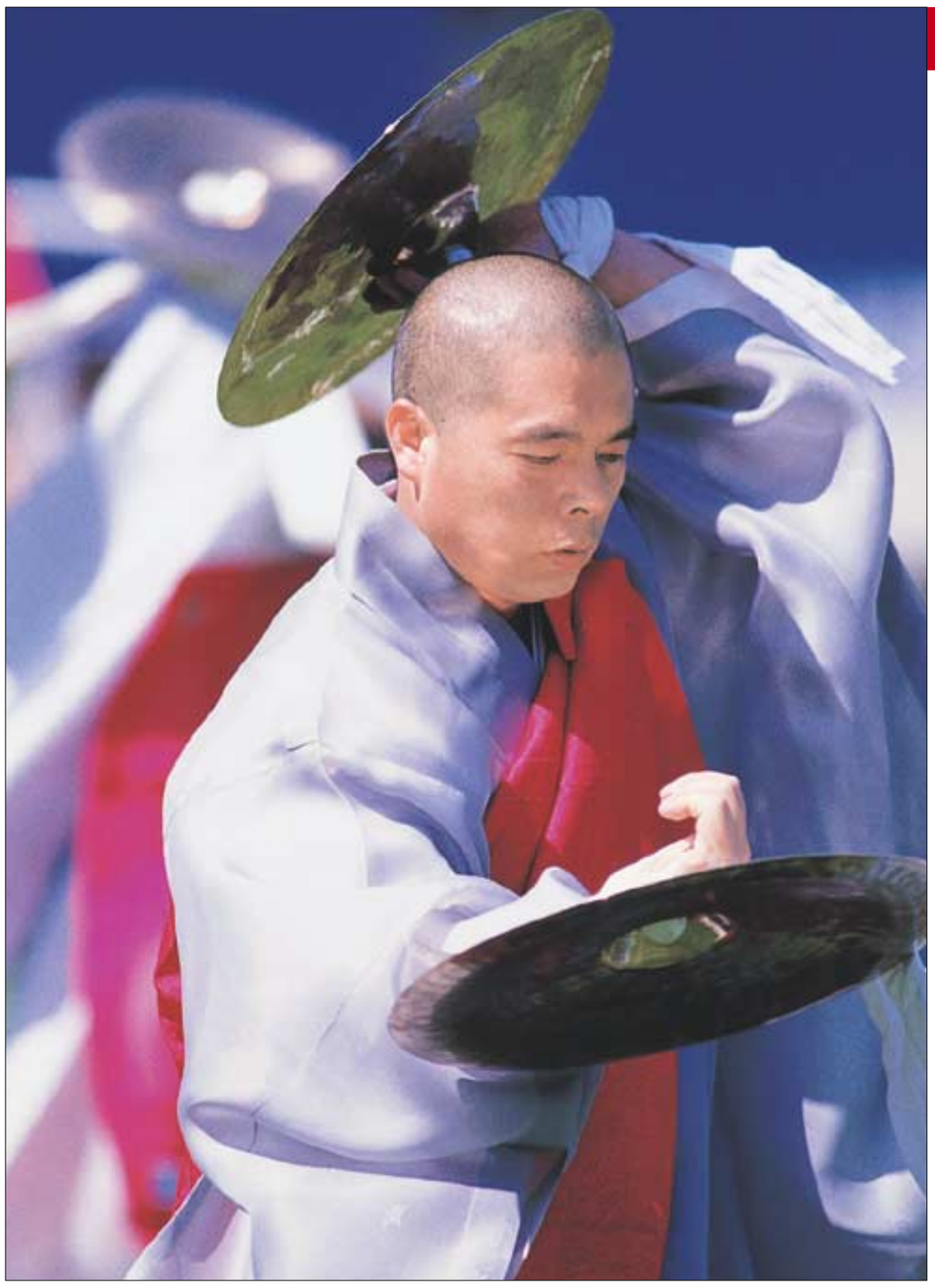
소리 · 악기 · 몸짓 조화

의식무의 최고



인천 수륙재에서 천수바라춤을 시연하고 있는 일초 스님.

▌인천수륙재 예능보유자 지정 일초 스님

"소중한 불교문화 더 많이 지정 계승돼야"

"민속문화 공연장을 가보면 항상 공연 시작전에 굿을 자주 하지요. 더군다나 굿들의 종류도 다양해 볼거리가 많더군요. 그런데 시작의 의미로 열리는 이 무속의 '굿'들이 50여개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불교도 방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무형문화재는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그래서 불교문화중 무형의 문화로 보존할 수 있는 '수륙재'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일초 스님(부평 자원사 주지 · 전통예술신문사 발행인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장)은 감회를 이렇게 털어놨다.

"범패의 작법무가 불교 의식무의 일부를 한 장르로 발췌해 독립시킨 것이라면 인천 수륙재는 종합적인 불교의식 무용입니다." 일초 스님은 '인천 수륙재'가 소리, 악기, 몸짓이 오케스트라처럼 어우러진 '불교 의식무의 정수' 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인천 수륙재는 전문가들로 부터 법음(소리)이 장중하고 환희에 넘친 법무(무용)의 역동성이 가히 의식무의 최고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지방에도 수륙재는 얼마든지 행해지고 있지만 특히 인천 수륙재 회심곡의 곡절과 길가름 의식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천만의 색깔이라고 일초 스님은 강조한다. 회심곡은 징과 북장단에 맞춰 소리를 하며, 길가름은 스님이 바라를 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때 다른 지역은 5음을 사용하지만 인천수륙재는 간성까지 6음을 사용하는 것도 차별성의 예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은 어부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해 부처님의 법을 강설하고 음식과 가무를 곁들이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인천 수륙재의 발원지는 지금은 사적지로 지정된 강화도 마니산 밑 '묘통사'이다. 인천수륙재 보유자는 만월산 약사사의 한능회 스님에서 시작해 운포, 한구하 큰 스님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1967년부터 1980년까지 법주사 등에서 전통 천도재 의식을 배운 일초 스님이 본격적으로 천도재 의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신촌 봉원사에 주석중인 마일운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준보유자)을 만나면서부터다. 일운 스님에게 5년동안 기초의식인 '상주권공'을 엄격하게 사사받았다. 이후 89년에는 박송암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50호 범패 보유자)에게 수륙재, 영산재, 각배재, 바라춤, 나비춤, 식당작업 등을 사사받으면서 불교의식무의 기초를 견고하게 다졌다.

이번 수륙재 문화재 지정을 위해 일초 스님이 쏟은 열정은 남다르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역사서를 탐독하면서 수륙재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또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천 자원사와 약사사, 정양사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번의 수륙재 시연회를 가졌다.

앞으로 귀중한 불교문화 자산들이 많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일초 스님은 요즘 인천시 무형문화재 범패 작법무 서울 전수관과 인천 본관을 오가며 후학 양성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외에도 4월 호암아트홀 명인명무전을 시작으로 5월 19일 인천시청 앞 봉축기념 공연, 6월 중국 산동문화원 범패시연, 9월 러시아 성페테스부르크 국립극장 초청공연 등에 참가할 계획이다.

- 회심곡, 길가름 '인천 수륙재' 만의 특징
- 지정위해 역사서 탐독, 시연등 열정 쏟아
- 호암아트홀, 중국, 러시아등서 공연 계획

▌인천 수륙재(水陸齋)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이다. 다른말로는 수륙무차평등재의(水陸無遮平等齋儀), 국행수륙대재(國行水陸大齋), 수륙회(水陸會), 비재회(悲齋會), 시왕재(十王齋), 신중재(神衆齋), 재석재(宰釋齋)라고도 한다.

수륙재의 시원은 중국 양(梁)나라의 무제(武帝)가 불심이 두터워 유주무주(有住無住)의 고혼(孤魂)들을 널리 구제함이 제일가는 공덕이라 생각하고 스님들과 상의 한 뒤 스스로 의식문(儀式文)을 만들었다. 이후 그 의식문에 따라 서기 505년 금산사에서 재를 베푼 것이 그 시초이다.

우리나라에서 수륙재가 성행된 것은 고려때 부터이다. 광종때에 가끔씩 성대히 열린 바 있었는데, 970년(광종 21)에 갈양사(葛陽寺)에서 개설된 수륙도량이 그 최초의 예이다.

조선시대에는 비록 억불정책에 의해 불교의식이 유교의식으로 많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약사사에서 봉행된 '수륙재' 시연 장면.

중국 무제 儀式文 제작, 505년 금산사 시초
고려때 성행, 조선 태조는 진관사 寺社 지정
강화도 중심으로 봉행, 지역따라 차이 보여

태조(太祖)는 진관사를 국행수륙재를 여는 사사(寺社)로 지정하여 크게 재의를 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1395년(태조 4)에는 견암사(見巖寺)와 석왕사(釋王寺) 등에서 고려 왕씨의 영혼을 달래는 수륙재를 베풀었다.

그 후 전국각지에서 지역의 특성과 생활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거행돼 왔다. 예를 들어 영남과 호남의 불교의식이 서울 경기지역의 의식과 많은 차이가 있듯이 '수륙재'도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행해 왔던 것이다.

인천 수륙재는 고려 문종(1066년), 명종(1171~1197), 회종(1209년), 태종(1401)에 이르기까지 강화도를 중심으로 봉행한 역사적 기록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불교의식인 인천수륙재는 타 지역에서 행해지는 수륙재보다 그 소리가 장중하며 법무는 환희에 넘쳐 흥겹게 너울거리는 역동성이 가히 '의식의 정수(精髓)'로 꼽히고 있다.

의식 끝부분의 회심곡(回心曲)은 인천 지역 서민들의 애환을 기리는 곡절이 아주 특이하며 길가름 의식은 타지역 수륙재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인천 수륙재'만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http://kumdeung.com

황 금 연 등

금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황금빛 찬란한
황금 연등으로 온 누리를 밝히소서

KD 금등사 대리점 모집 · 구매상담 031) 846-1950. 011-774-1452

120년만에 찾아온 윤달이 낀 갑신년은 金의 해! 부자 되는 해입니다.

소원성취(象眞珠) 영험메달, 금불상 반지

※ 본 제품은 큰 스님의 높으신 법력으로 백일불공을 마치고 영험으로 제작된 성품으로 몸에 지니고 있으면 강한 영험을 느낄 수 있으며 서원하는 모든 일들이 풀리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십니다. ※18k도 주문·제작

금불상 영험반지 는
중앙에 금불상 부처님을 모셨고 그 위에 맑은 수정을 안치하였으며 돌아가며 六字大明王眞言 즉 옴마니반메훔을 양각하여 영원불멸의 생명력을 투입하였습니다. 좌우측엔 불교 고유자를 양각하여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수행정진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누가 휴대해야 하는가?
• 부정을 소멸시키고 소원성취를 발원하시는 분
•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환자가 있을때
• 삼재가 드신 분
• 부부화합 · 자손의 번창과 무사번영을 기원할 때
• 운전자의 무사고를 기원할 때
• 시험을 앞둔 수험생
•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기원드리는 효도선물

골드 14k 영험 메달
상진주/14k 2.3돈/다이아 1EA ₩ 192,000

실버 영험 메달
상진주/은 2.3돈/다이아 1EA/가죽체인 ₩ 105,000

골드 14k 금불상 영험 반지
남반지:수정/금불상/14k 2.8돈/큐빅 6EA ₩ 222,000
여반지:수정/금불상/14k 2.6돈/큐빅 6EA ₩ 204,000

실버 금불상 영험 반지
남 · 여반지:수정/금불상/은 2.8돈/큐빅 6EA
남 · 여 각각 ₩ 99,000

※ 주문시 배송비는 무료이며, 개별 접안불공을 거쳐 보석감정 원본을 첨부하여 출시되는 관계로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正進洋行 상진주 JEWELRY 제조 · 판매 [Balian] 주문처 ☎02)2231-9305(주야 접수)